



가슴으로 묻은 세월호 ‘별이 되다’ 현정상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포항 지진 등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7정유년(丁酉年)이 별들의 궤적과 함께 저물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1천315일째인 지난 11월20일 끝내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5명은 가족들의 가슴에 묻혀 영면에 들어갔다. 거짓이 진실을 농락했던 전 정권의 꿈 아더진 국민들의 상처가 적폐청산으로 2018년엔 모두 치유될 수 있길 희망해 본다.

/목포신문=김예리 기자 kki@kjdaily.com

“시대정신 부활”...아듀! 정유년

‘비정상의 정상화’ 향한 적폐청산 출발점 기록
물으로 올라온 세월호 우리 사회 민낯 드러내
어려운 경제상황 아쉬움...내년 地選 선택 주목

격동의 2017년이 저물고 있다. ‘촛불’로 촉발된 정유년(丁酉年)의 역사는 대한민국 사회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던 ‘변혁’의 의미를 다시 소환했다. 무관심과 패배의식에 빠져 있던 국민들이 다시금 정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각성제 역할을 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스스로 묻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방법을 고민하게끔 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을 잇는 시대정신이 되살아났다.

부활한 시대정신은 결국 대한민국의 권력을 갖고 있는 국민 한명, 한명의 힘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9년은 사실상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치욕의 시기였다. 연일 드러나는 당시의 적폐는 형용하기 힘든 참담함마저 준다. 그 적폐청산은 현재진행형이다. 정유년은 몰상식으로 점철된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단초였을지도 모른다. 세월호가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문제점이 잉태한 비극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차가운 바다 속에 잠들어 있던 세월호가 3년 만에 물으로 올라오면서 썩을 대로 썩은 ‘상처’가 드러났

다. 아이러니하게도 절망이 희망을 보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다.

물론 수십여 년간 이어진 적폐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쉽지 않다. 일부 보수 세력의 반발이 여전하고 이념의 양극화는 깊어지고 있어서다.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적(敵)으로 인식하는 이념적 잣대만이 판을 친다. 역사의 물길을 역류하지 않게 하는 것 역시 국민의 힘일 터. 커커이 쌓인 시행착오는 우리 국민을 단련시킬 만큼 충분했다.

정치·사회적 정상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은 녹록지 않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속적인 대출금리 인상은 서민 가계를 옥죄고 있다. ‘빛을 내 집을 사라’던 전(前)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이자 폭탄을 떠안겼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도 여전하다. ‘좋은 일자리’가 없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청춘들이 넘쳐난다.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체의 절규도 계속된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거나...악순환의 연속이다.

희망과 아쉬움이 공존한 정유년의 남은 달력은 이제 3장 뿐. 또 다시 새해는 다가온다. 5·9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라는 변혁을 만들어낸 국민 앞에 또 다른 선택지가 기다린다. 2018년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겠지만 내년 지방선거는 남다르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만큼 지방권력의 가치는 커질 게 자명하다. 앞으로의 역사 속에 ‘?’가 아닌 ‘!’를 남길 선택이 필요하다. 정유년의 시대정신은 무술년(戊戌年)엔 진정한 지방자치로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국민의 힘이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어등산단지 개발 이번엔?

市, 우여곡절 끝 신규사업자 공모 착수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신규 민간사업자 공모가 시작됐다.

광주시는 28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재개를 위해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 사업은 시의 재정투입 없이 어등산 일원에 광주의 정체성에 걸맞는 관광단지를 조성, 부족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관광트렌드와 우리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다.

공모는 기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유원지(41만7천531㎡) 부지에 대해 상가시설 면적은 2만4천170㎡로 제한하되,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기준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자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을 포함한 휴양·문화시설 등의

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광주시는 사업 참가의향을 내년 2월28일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를 내년 5월 31일까지 접수하며,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평가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발효과와 환경이 될 판매시설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만큼 실제 투자자가 나설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가 본격적인 관광단지 조성사업 재추진의 마중물이 돼 장기적으로 관광인프라 확충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미래의 먹거리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전라도 정도 천년 ‘희망의종’ 울린다

31일 5·18광장서 타종행사

전라도 정도 천년 새해의 희망찬 출발을 위한 ‘전라도 천년맞이 타종행사’가 31일 오후 10시30분부터 2018년 1월1일 오전 1시까지 5·18 민주광장 민주의 종각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등 3개 시·도는 전라도 천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다가오는 천년 전라도의 도약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타종행사를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초대형 규모의 강강

술래와 줄타기 공연, 1천m 가래떡 나눔 행사, 광주·전남 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타종행사에는 3개 시·도지사, 의장, 교육감 등 9명과 시·도민 대표 15명 등 총 24명의 타종인사들이 참여해 3개 시·도 공동으로 9회 타종한다. 이어 광주시 8회, 전남도 8회, 전북도 8회 순으로 총 33회를 타종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 천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한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신정 연휴 1일자 신문 쉽니다

호남 최초 스마트폰 방송국
광주매일 TV
광주매일TV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광주매일TV 개국 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 윤정현 광주시장
[스타브랜드] 전라도 김치 명인 천복식당
지방자치 이슈 & 인물 & 정순애 광주 서구의회의원
더좋은 광주 일자리포럼 제2차 라운드테이블
지방자치 이슈 & 인물 - 심철의 광주시의원
제4회 빛고를 건강 게이트볼대회

m.kjdaily.tv m.kjdaily.com
PC·스마트폰·유튜브·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고·사정문의 062)650-2070

광주매일 TV 개국 2주년 기념

세여자

사미자 최초우 이성경
작 최술 각색 오승수 연출 최술, 오승수

2018. 1. 25 목 15:00 · 19:00
빛고를시민문화관 공연장 (광주공원 앞)
입장료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공연예매 및 문의 : 광주매일신문 기획실 (062)650-2007, 2078-9
※ 공연당일 현장구매도 가능

주최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 TV**

우리가족 처음으로 사진 찍던날